

정세균 “대통령에 협치내각 건의 할 것”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야권 삼권분립 훼손 지적

“내년이 개헌 적기...대권 생각 없어”...13일 표결 유력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올해 총선 이후 ‘협치내각’을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내각’ 구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치내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거국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내각을 구성해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다”며 “국회 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협치 내각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이 32년 차

다. 32년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며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의원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서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이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선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의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 후보자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며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7일과 8일 이틀동안의 정



국무총리 후보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이후에 이뤄질 국회 임명동의(인준)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인준 절차를 15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목표지만,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인준 자체에 부정적이다.

정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견해차를 이어간다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정수사관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의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은 8일 청문회를 마치고 13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과 4·15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한 이날인 국무총리의 공직 사퇴 시한(16일) 등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4+1만으로 과반(148명)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민주당은 다시 ‘조개개 임시국회’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총선 라운지

박주선, 12일 조선대서 월명 스님과 북토크쇼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이 오는 12일 오후 2시 광주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저서 ‘박주선’의 저자인 월명 스님과 함께 북 토크 ‘공감’을 연다. 북 토크 ‘공감’은 ‘달빛은 구름도 바람도 맞지 않는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월명 스님의 저서 ‘박주선’은 박 의원의 생애를 고전에 비추어 조명한 책이다.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광주교수



석 졸업한 이야기, 삼수 끝에 서울대 법대에 진학하는 과정,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일,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과정 등이 담겨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민주당을 지키려 몸부림친 이후에 벌어진 네 번의 구속과 네 번 무죄 판결 등도 기록되어 있다.

이병훈 “무등산·광주천·푸른길 생태공원화”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7일 “광주천이 2020년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을 기념하여 무등산, 광주천, 푸른길을 연결하여 생태공원화 하는 ‘푸른길 100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광주천은 ‘아리랑물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동구 학동으로부터 영산강 합류지점까지인 12km만 해당된다”며 “푸른길은 광주역



에서 광주대까지 7.9km인데 동명동 구간에서산수, 지산, 조선대 뒤편과 증심사 계곡을 연결하는 생태탐방로를 개설할 경우 푸른길과광주천은총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0km로 1백리에 이르는 생태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푸른 숲은 미세먼지를 제거할 최상의 방안이다. 이를 활용해 원도심 녹지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11일 ‘진짜일꾼 김명진’ 출판기념회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

김명진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명품서구 진짜일꾼 김명진’의 출판기념회를 한다.

김 후보의 저서 ‘명품서구 진짜일꾼 김명진’은 지난 2018년 6·13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이후 570여일 동안 지역주민과 함께했던 일상을 소개하고 저자의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개인사를 서술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유성업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경환 대안신당 광주시장위원장, 윤영일 대안신당 전남도당위원장, 천정배, 장병란, 김동철, 김경진, 김중희, 이상돈, 장정숙, 이용호 국회의원 등과 저자의 모교인 광주 서석고·북성중 동문을 포함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용빈 “균형발전 위해 새 사회시스템 절실”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7일 “대한민국 인구중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며 “우리가 직면한 균형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시스템과 새로운 감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도권 인구 집중 해결책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구, 경제성장, 지



역경쟁력 등 우리는 현재 모든 것이 수축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구절벽의 시기가 임박해왔다”며 “기존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 대안으로 ▲규모 있는 촉발자원 투입 ▲민생경제와 미래까지 연결 등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당 ‘영입 5호’ 청년소방관 오영환씨

더불어민주당은 7일 4·15 총선을 앞두고 ‘소방안전 전도사’로 알려진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31) 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어느 소방관의 기도’를 펴냈으며, JTBC의 TV 길거리강연 프로그램 ‘말하는대로’에 출연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오씨는 “소방관으로 살고 싶었지만, 누군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해 필요한 법과 제도,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절박하게 공감해본 사람이 정치자를 해야 더 절박하게 일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5호인 오영환 전 소방관(왼쪽)과 아내인 ‘암벽여제’ 김지인 씨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입행사에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의당 18세 청소년 입당식 ... 심상정 “세대교체 신호탄”

‘만18세 타킷’ 5대 공약 발표

정의당은 7일 국회에서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 10여명의 입당식으로 개최했다.

심상정 대표는 입당식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당을 생애 첫 정당으로 선택해준 데

대해서 정말 기쁘고 환영한다”며 “만 18세 청소년들의 정치 진입은 낡고 부패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록권 정치권에 목소리를 낸 여러분들의 승리이자 성과”라며 “청소년의 판단력과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청

소년의 참정권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온 자유한국당에 대해 단호하게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또한 “18세 시민 여러분에 드리는 정의당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만 16세로 선거권, 만 18세로 피선거권 확대 ▲학생인권법 제정 ▲등록금 무이자 대출 및 병사월급 100만원

실현 ▲19~29세 중위소득 이하 독립 청년에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 ▲20세 청년에 5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사상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18세 청소년들은 입당식에서 선언문 낭독 후 입당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날 공식 입당한 만 18세 예비당원은 54명이다. 정의당은 오는 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막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